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가 과학기술 진흥과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국가 과학기술정보 분야의 전문연구기관으로써 「과학기술기본법」을 통해 국가로부터 과학기술 정보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임무를 부여 받은 국내 유일의 정부출연연구소이며, 2011년 제정된 「국가초고성능 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슈퍼컴퓨팅센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KISTI는 과학·기술 및 산업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슈퍼컴퓨터와 국가과학기술연구망과 같은 첨단 연구개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운영 및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KISTI는 정보와 데이터 중심기관으로 국가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는 연구기관으로 국가와 국민이 요구하는 과학기술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KISTI는 디지털트윈 분야에서 데이터와 슈퍼컴퓨팅, 그래픽스 기술을 연계하여 가상풍동, 가상수조, 계산과학플랫폼 등의 핵심기술을 개발하여 방위사업청장상, 기술이전, 국가연구개발 100선 선정, IDC HPC Excellence Award 등의 국내외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노력을 기반으로 비대면, 메타버스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KISTI를 주관기관으로 KAIST,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이 협동기관으로 기관의 강점과 장점을 결합한 융합연구단을 2021년 12월 1일에 공식적으로 개소하였다. 오픈XR(확장현실) 융합연구단은 과학기술연구회(NST)의 지원으로 2027년까지 메타버스의 핵심이 되는 XR 플랫폼 요소 기술을 집중적 연구개발한다.